

The Gospel of Mark

Sermon 39 – Sermon Notes

Title: “Death, resurrection and who is the greatest”

Scripture: Mark 9:30-37

Date preached: Jun 4th 2023

Scripture: Mark 9:30-37

30 Then they departed from there and passed through Galilee, and He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31 For He taught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being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and they will kill Him. And after He is killed, He will rise the third day.” 32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is saying, and were afraid to ask Him.

33 Then He came to Capernaum. And when He was in the house He asked them, “What was it you disputed among yourselves on the road?” 34 But they kept silent, for on the road they had disputed among themselves who *would be the* greatest. 35 And He sat down, called the twelve, and said to them, “If anyone desires to be first, he shall be last of all and servant of all.” 36 Then He took a little child and set him in the midst of them. And when He had taken him in His arms, He said to them, 37 “Whoever receiv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in My name receives Me; and whoever receives Me, receives not Me but Him who sent Me.”

30 예수님의 일행은 그 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31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 일 만에 다시
□□□□□□ □□□□ □□□□. 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33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으나. 34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35 예수님은 앉으신 후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moment to review the dramatic story we examined last time.

We picked up the story with the Lord Jesus, Peter, James and John coming down from the high mountain. It was up, most probably on the heights of Mount Hermon that the Lord Jesus had been transfigured. Still shocked and reeling from what they had seen the disciples and Jesus come down to rejoin the other nine disciples.

We are not sure what the Lord's command to this group of nine had been. Were they ordered to sit and wait at the foot of the mountain, or were they given permission to minister in the local towns and villages?

Whatever the Lord had said it seems likely that news of their presence in the area had reached some of the locals. Even in the ancient world local news could travel quickly.

It must have been a cause for great excitement in that area. It gave the locals a rare opportunity to approach them for their help. Therefore the nine disciples waiting at the foot of the mountain were approached by a man whose son was demon possessed. We learn from Mark's account a great deal about the power this demonic entity had over the child, and how it repeatedly tried to harm him. The man is, initially at least, confident that the disciples have the power and authority to cast out this unclean spirit. He is to be disappointed. The disciples are unable to cast out this demon. Some scribes who had been observing the proceedings come across and a dispute erupts between them

and the disciples. It is at this point that Jesus appears on the scene.

Immediately He wants to know from the scribes what they are arguing about. Scripture does not tell us the exact nature of their dispute. We are left to speculate. The most obvious answer is that they were disputing over why the disciples were unable to effect an exorcism. We can imagine the conversation. The scribes saying, "We thought you had the power to cast out demons." And the disciples countering with, "Well if you know so much about it why don't you cast out the demon?"

Before the scribes have the chance to reply to Jesus, the boy's father speaks up. He tells Jesus about the plight of his only child. This son had been afflicted since childhood. The demon has rendered the boy unable to hear or speak. To the Jews of that day this meant affecting an exorcism would be almost impossible. This was because in order to cast out a demon it was necessary to know its name. The boy's inability to speak meant the demon's name was unknown. When the demon manifested itself it sent the boy into convulsive fits. During these violent fits he would writhe on the ground and foam at the mouth. At other times he would gnash his teeth or become rigid. As I said last time many of these symptoms align with those suffered by epileptics. Matthew in his gospel tells us that the boy was an "epileptic" (Matt 17:15). This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selēniazomai* (sel-ay-nee-ad'-zom-ahee). It literally means "moonstruck," it was called this because ancient people believed that these fits (attacks) were connected in some way to the phases of the moon. Even today if you speak to some police officers or staff in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s they will insist there are more accidents, violent incidents and psychiatric admissions when the moon is full. Today most people would say that the boy was a lunatic, or if we were being particularly uncharitable that he was crazy. We cannot know for certain the exact nature of this boy's situation. Did the demon use the existing epilepsy to further torment the child? Or, did the way the demon manifest itself simply appear like the symptoms of epilepsy? Whatever the case the disciples were unable to help the boy by casting the demon out.

The desperate father asks Jesus if he will show compassion, and help them if He can. The Lord Jesus knows that He has the power. The real issue lies in whether the father believes that Jesus has the power. The father's honest response to Jesus is that although he has some faith it is not strong. He asks for Jesus to strengthen it. The Lord Jesus will indeed strengthen it by doing what His disciples could not; casting out the demon. He begins by rebuking the demon and commanding it to come out and never to return. The demon does exit the boy, but not before convulsing him so terribly that it appears to have killed him. The crowd that have gathered to watch look on in shock. The Lord Jesus takes the boy's hand and lifts him up. The demon has gone and boy has been healed.

The episode concludes with Jesus and the disciples in a house. In this private setting the disciples ask Jesus why they were unable to cast out the demon. They had after all been given the power and authority by Jesus to cast out demons.

They had also successfully done so on previous occasions. The Lord Jesus' answer is most illuminating. He tells them that this "kind" of demon can only be cast out with prayer and fasting. What He is really reminding them is that any power we have ultimately comes from God. If we try to do things in our own power and strength we will inevitably fail. So why were the disciples so ineffective? Was it because they had become arrogant and prideful? Had they come to believe that they could do the miraculous without first going to God and asking for His blessing and empowerment?

We would do well to learn an important lesson from this. The lesson we must learn is that in our own strength and power we are weak and pathetic. But when we work with God on our side, and are doing things that are in line with His will then nothing can stand in our way.

Today we will again sit at the feet of our Lord and saviour as He teaches the disciples some difficult lessons.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극적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변형되신 곳은 아마도 헤르몬 산 정상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본 것으로 인해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른 아홉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홉 명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산기슭에 앉아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역 마을에서 사역하도록 허락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 지역에 그들의 존재에 대한 소식이 현지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뉴스는 빠르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큰 흥분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홉 제자에게 귀신 들린 이들을 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기록에서 이 귀신의 존재가 아이에게 미치는 힘과 그것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아이를 해치려고 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몇몇 사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사기관들이 무엇에 대해 변론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엇에 대해 논쟁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측해야 합니다. 가장 분명한 대답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기관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희가 그렇게 잘 알면 너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그러느냐?"

사기관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도 전에 소년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외아들의 곤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귀신은 그 소년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악마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귀신이 소년에게 경련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격렬한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땅바닥에 몸부림치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이를 갈거나 굳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러한 증상 중 많은 부분이 간질 환자와 일치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 소년이 "간질 환자"였다고 말합니다(마 17:15). 이것은 헬리어 selēniazomai (sel-ay-nee-ad'-zom-ahee)의 번역입니다. 문자 그대로 "달빛 공격 moonstruck"을 의미하며, 고대인들은 이러한 발작(공격)이 달의 위상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경찰관이나 병원 응급실 직원들은 보름달이 뜨면 사고, 폭력 사건, 정신과 입원이 더 많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년이 마치광이라고 말하거나, 심하게 말하면 그가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의 정확한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더 괴롭히기 위해 기존의 간질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귀신이 나타내는 방식이 단순히 간질 증상처럼 나타났을까요? 어쨌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어 소년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예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아십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정직한 반응은 그가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 - 귀신을 쫓아내는 일 - 을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귀신은 나가기 전 소년이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에게 심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구경하기 위해 모인 군중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주 예수님은 소년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귀신이 나가고 소년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걸로 끝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성공적으로 토마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대답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그들에게 상사키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무능력했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축복과 권능을 구하지 않고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약하고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어려운 교훈을 가르치실 때 다시 우리 주님의 앞에 앉을 것입니다.

30 Then they departed from there and passed through Galilee, and He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As I have said on a number of occasions we have now reached a turning point in Mark's gospel. Prior to this point we have seen the Lord Jesus base Himself in Capernaum, and spend the majority of His time ministering in the region of Galilee. Now as He travels south from Caesarea Philippi He will pass through Galilee not to return until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His attention is now concentrated upon the holy city of Jerusalem and what He must do there. He will use the limited time He has available in preparing both Himself and His disciples for what is to come.

We might wonder whether Jesus felt a certain sadness at leaving behind all that was so familiar. Perhaps He did, He was fully human, so just like us I'm sure He developed affections for certain people and places. No doubt just like us, He slept best in His own bed, and was most comfortable and content in a familiar setting. But we also know that He came to earth with a specific mission and nothing would deter Him from accomplishing it.

As they travel we once again see the recurring motif of wanting to keep things quiet. The Lord Jesus does not want His location to be widely broadcast. So perhaps they travelled on the less frequented trails, and avoided the main towns and villages. The reason for this may be two fold. Firstly the opposition of Herod Antipas and the Jewish authorities had not gone away. They are still eager to confront and challenge Him whenever they can. How tiring this must have been for the Lord. How understandable that He would seek to avoid them.

Secondly Jesus didn't want the huge crowd clinging to Him and hindering His progress south. This is not of course because Jesus had ceased to love and care for the everyday people of Israel. But rather that He was being purposefully selective. He was selecting to spend valuable teaching time with His disciples. All ministries must at times be purposefully selective. Even the biggest and best equipped churches cannot do everything. They must choose to focus for example on training and funding a few missionaries, planting a new church or supporting a single soup kitchen or orphanage. When they do this we don't assume that they now don't care about everyone else in need. We accept that they have just made a decision to prioritise one thing over another. Let us continue.

30 예수님의 일행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 □ □ □ □ □ □ □ □ □ □ □ □ □ □ □ 이 시점 이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기반을 두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여행하시면서 갈릴리를 통과하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까지는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기울 일을 위해 자신과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남은 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토록 친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어떤 슬픔을 느끼셨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과 장소에 대한 애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자신의 침대에서 가장 잘 주무셨고 친숙한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고 만족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분이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자상에 오셨으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면서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조용히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위치가 널리 방송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이 덜 다니는 길을 따라 여행하고 주요 도시와 마을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먼저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당국의 반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할 수 있을 때마다 여전히 그분과 대면하고 도전하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분이 그들을 피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큰 무리가 따라붙어 남쪽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일생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귀중한 시간을 쏟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선별되어야 합니다. 가장 크고 가장 잘 갖춰진 교회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몇 명의 선교사를 훈련하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새 교회를 개척하거나, 무료 급식소나 고아원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듯 선택적으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 가지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계속합시다.

31 For He taught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being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and they will kill Him. And after He is killed, He will rise the third day.” 32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is saying, and were afraid to ask Him.

As they travel the Lord Jesus will use this valuable time to teach the disciples. He begins by again giving them a prediction of His future passion. This is the second of three passion predictions in Mark's gospel (8:31; 9:31; 10:33–34). On the last occasion the Lord spoke only to Peter, James and John as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ll the disciples together are hearing this. On each separate telling we discern a similar three component structure;

1. The Son of Man must suffer
2. He must be killed
3. After three days He will be resurrected.

Let us consider each component in turn.

We know that the Son of Man (the Messiah) must suffer, we cannot read the passion accounts without being horrified by the physical and emotional suffering the Lord went through. The prophet Isaiah had predicted this suffering (53:3-5). He also outlined why Jesus would suffer. He would suffer for our sins, and His glorious death would bring us healing and peace.

In each of the passion predictions we learn that Jesus will be killed. Let me make a few comments on this. The first is that His death is intentional. The Lord Jesus knows it will happen and is not running from it or trying to avoid it. He is in fact walking directly and purposefully towards it. This means it is not an accident or something that came about in an unexpected way. You may have heard the argument made that “Jesus's revolution movement” ended in abject failure due to His death.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Christ's passion serves as the pivotal point in all human history. It was a glorious success.

Finally, we learn that after a precisely defined period of time He will be resurrected. It is to be three

days. As followers of Christ we all accept this fact. But have you ever stopped to wonder why three days? He could have risen after one, two or four and it still would have been historically valid. It still would have been proof that He was who He claimed to be. So the question we might ask is,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ree days? Is it just a random amount of time? Of course not.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a person's soul/spirit remained with their dead body for three days. After three days, the soul/spirit departed. If Jesus' resurrection had occurred on the same day or even the next day, it would have been much easier for His enemies to argue He had never truly died.

A second reason it was important for Jesus to be dead for three days was to fulfil biblical prophecy. Jesus personally claimed He would be dead three days (Matthew 12:40; 16:21; 27:63; John 2:19).

A third reason is that the "third day" is significant in other ways. When we look back at the creation event we see that on the "first third day" God created life in plants and trees (Gen 1:11-13). He brought life from a place that was barren and dead (the ground). On the sixth day of creation, the "second third day" God again created life. He brought animals and man into existence (Gen 1:24). Following the creation of man God entered into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him. So the third day period of time represents God's pattern of firstly creating new life and secondly in establishing a covenant with humanity. So we see that it being the third day is highly significant for several reasons.

We also see here in verse 31 the first mention of the idea of betrayal. The is the Greek word *paradidōmi* it conveys the sense of being "given over to," "delivered to" or being "handed over to someone." We know that the Lord Jesus will be betrayed by one of His twelve disciples; Judas Iscariot. But there is also a greater sense conveyed here that God the Father will "deliver, or hand over" the Son of Man into the hands of men.

This is a difficult teaching for the disciples. They are puzzled and confused by the Lord's words. As we have mentioned before the whole concept of the Messiah suffering and dying was alien to them. Also we should note that this news was very unpalatable.

They clearly did not want to think of the Jesus they loved and esteemed so highly being taken and killed in this brutal way. We must als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God was supernaturally keeping the true meaning or understanding from them at this time (9:45).

Verse 32 concludes by telling us that they were too afraid to ask Jesus to elaborate further. It's interesting to think of our Lord and saviour as being someone who provoked fear. We tend to think of Jesus as always being loving, meek and mild. We forget that He was also at times righteously angry and expressed strong emotions. So what lay behind the disciple's fear? Perhaps they were unwilling to express their bafflement because it would have left them looking foolish or stupid. It's like that old idiom goes, "better to keep your mouth closed and have people think you are a fool, rather than opening your mouth and having their suspicions confirmed." So perhaps they were just embarrassed to confess they were puzzled. Or maybe they did not want to provoke the Lord Jesus into rebuking them again as He had recently done. Let us read on.

31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묻지도 두려워하였다

여행하는 동안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곧 닥칠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세 번의 고난 예언 중 두 번째입니다(8:31; 9:31; 10:33-34). 지난 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유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봅니다.

1.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2. 그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
3. □ □ □ □ □ □ □ □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직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9:45).

32 절은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께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끝맺습니다. 우리 주님과 구세주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온화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때때로 의롭게 화를 내셨고 격한 감정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두려움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어리석거나 어리석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당혹감을 표현하기를 꺼렸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입을 벌려 자신이 바보임을 확인시키는 것보다 입을 다물고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혼란스럽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주 예수께서 최근에 하신 것처럼 다시 꾸짖으시도록 그를 격노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읽어 보시다.

33 Then He came to Capernaum. And when He was in the house He asked them, "What was it you disputed among yourselves on the road?"

Jesus and His disciples have arrived in Capernaum. This will be the the Lord Jesus' last visit to this town. Once again, they are in the cosy and familiar place which has served so well as the Lord's base of operations. It was in all probability Peter's house. Mark often refers to teaching or instruction taking place in a house. It seems as though the Lord liked to impart instruction in private house settings. Once they are all settled He asks them about what it was they had been arguing about on the journey. The actual account of this dispute or argument is not given to us in any of the gospels. We are therefore left to speculate as to exactly who said what, and how it was said. It is probable that they walked stung out in a long line along the narrow path with the Lord Jesus (their rabbi) at the front. Therefore those at the back arguing or disputing probably thought that Jesus had not seen or heard what went on. They were mistaken. It was clearly evident to Jesus that something had occurred. He wants to know what it was at this critical moment in His ministry that had riled them up to the point of argument. Let's read on and find out.

33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셨으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이 마을에 대한 마지막 방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들은 주님의 작전 기지 역할을 해온 아늑하고 친숙한 장소에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종종 집에서 있었던 가르침을 언급합니다. 주님은 개인 집 환경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들이 여행 중에 논쟁했던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논쟁에 대한 실제 설명은 어떤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히 누가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말했는지 추측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그들의 랍비)를 앞에 두고 좁은 길을 따라 긴 줄을 서서 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말다툼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예수님께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역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논쟁을 할만큼 그들을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 읽고 알아보시다.

34 But they kept silent, for on the road they had disputed among themselves who would be the greatest.

The disciples are shamed or embarrassed into silence. No one volunteers to answer the Lord's question. Even Peter for once keeps his mouth shut! There is of course a very good reason for this. The Lord Jesus had spoken to them about His forthcoming passion. About how He would be handed over, brutalised and killed. These were deep and intimate truths that were hard to express, and

equally hard to hear. There are many ways the disciples may have taken this news. They might have been horrified, saddened, disturbed or even angry. They might have wanted to reject what He had said and dismiss it entirely.

Was this what they were arguing about as they walked? No, as they were walking they were in fact arguing among themselves as to who would be the greatest. You see all of them in their minds pictured Jesus as the Messiah king. Ruling from a throne in a palace. Naturally, He would need good men around Him. Powerful men to send out and carry out His orders and decrees. This was what they were disputing. Who amongst them deserved or merited serving as Jesus' second in command.

To properly understand the disciples here we need to know a little about Judaism. In Judaism there is a great deal of emphasis placed on seating, rank and position. Or to put it as one commentator said, the Jews were mesmerized by status. This fixation with social status is of course not limited to Judaism. So in Jesus' day where someone was placed or seated at a dining table for example emphasised their importance or lack thereof. To be seated close to the host was a position of honour and prestige.

Also where someone was placed in a procession or public parade said a great deal about who they were, and how they were to be regarded. So in some ways the disciples are just reflecting the culture of their day in arguing where they should be ranked in importance.

I suppose there are some parallels with Confucian culture that still dominates social situations in Korea today. Who gets to sit where, who eats first, or who can leave the table first are all determined by age, rank or importance. However in this case it is highly inappropriate, such questions of rank and status have no place in Christ's Kingdom. Let us continue.

34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illegible]

이것이 그들이 걸으면서 논쟁한 것입니까? 아니, 그들은 걸어가면서 사실 누가 크냐며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전의 왕좌에서 통치. 당연히 그분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법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할 능력있는 자들. 이것이 그들이 논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 다음 위치에서 지휘관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대교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자리, 계급, 자유를 매우 강조합니다. 한 주석가가 말했듯이 유대인은 자유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유에 대한 집착은 물론 유대교에 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가 식탁의 어디에 앉는 것은 그들의 중요성이나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인과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영예와 위상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행렬이나 공개 퍼레이드에서 배치된 위치는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지들은 그들의 중요성에 따라 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유교 문화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고, 누가 먼저 먹고, 누가 먼저 식탁을 떠날 수 있는 지는 모두 나이, 계급 또는 중요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러한 자유와 위치에 관한 질문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계속합시다.

35 And He sat down, called the twelve, and said to them, “If anyone desires to be first, he shall be last of all and servant of all.”

The first thing we note is that Jesus sat down. What's the significance of that you may ask? This was the traditional teaching position of the rabbis. It's significance would not have escaped the disciples. Straight away they would have thought, our master is about to speak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When He has called the disciples to Him He begins to teach. The first lesson is centred on how God measures or evaluates greatness.

What God deems important runs counter to the ideas and notions of men. No human being wants to be at the bottom. None of us wants to be regarded as the lowest valued worker in our companies, factories or offices. All of us crave to rise up and to be able to hold a rank or position of importance. We want people to look up to and admire us. For many people their entire working lives are spent scheming and trying to devise ways to climb up the corporate ladder. We might imagine a person with these ambitions climbing the ladder and kicking at the people clinging on below them. This is how the world operates. It's often “dog eat dog” in our efforts to succeed.

To the world a great man is distinguished by how many people serve him, or are under him. In ancient China for example, it was fashionable for wealthy men to grow their fingernails long. This was not done for fashion. It was intentionally done to demonstrate that their hands were unusable for basic daily tasks. With long curled fingernails there was literally nothing you could do. This meant that a servant had to always be there to do what was needed. So the long nails were a sign of great status. They showed the world that you were so great that you could afford to do nothing. The world may think of this as greatness, but God does not. Jesus declared that true greatness is shown not by how many serve you, but by how many you serve.

God, you see is pleased and glorified by our sacrificial service. Sacrifice simply put means putting the needs of others before your own. True sacrifice means that we don't seek to be first but instead willingly and happily accept being last.

Now some may hear this and think that Jesus is calling for us to lack ambition. After all we don't say to our children, when you get to work aim to stay at the bottom level forever. No, we encourage them to work hard and make progress. But what Jesus is calling for here is a completely different kind of ambition. It is not a selfish ambition to serve our own needs, but an ambition to serve others and please God. It was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the disciples were arguing about on the road to Capernaum. Let us read on.

35 예수님은 앉으신 후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목하는 첫 번째 것은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랍비의 전통적인 가르치는 위치였습니다. 그 의미는 제자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곧바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승이 말씀하려고 하시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위대함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관념과 다릅니다. 어떤 인간도 맨 밑바닥에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회사, 공장 또는 사무실에서 가장 낮은 가치의 근로자로 간주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승진해

서 중요한 지위나 위치를 차지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전 직장 생활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망을 가진 사람 이 사다리를 오르고 그들 아래에 매달린 사람들을 발로 차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종종 "개가 개를 잡아먹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그 아래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부유한 남자들이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것은 패션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이 기본적인 일상 업무에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긴 손톱으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종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긴 손톱 은 높은 지위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섬 기는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적인 섬김을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희생이란 간단히 말해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희생은 우리가 첫째가 되려 하지 않고 가까이 그리고 기쁘게 꼴찌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망을 갖지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들 누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일을 시작할 때 영원히 초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발전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야망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야망입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다투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계속 읽어 보시다.

36 Then He took a little child and set him in the midst of them. And when He had taken him in His arms, He said to them, 37 "Whoever receiv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in My name receives Me; and whoever receives Me, receives not Me but Him who sent Me."

In Matthew's account of this event the disciples ask Jesus a question concerning the grounds for greatness in His Kingdom.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saying, "Who then is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Matt 18:1)

The Lord answers their question by giving them an object lesson. He will use a real physical object, in this case a small child to teach them a practical lesson.

Today we highly value children. We rightly consider them to be precious and special. In many countries today babies and young children are almost revered. Wherever they are taken they are fawned over and admired. But things were very different in the ancient world. A child was the least significant person in Jewish and in Greco Roman culture. In that day, children were regarded more as property than as individuals. It was understood that they were to be seen and not heard. There was sadly a very good reason for their low status. Infant mortality was a very real concern. A shockingly high number of babies and children died in infancy so parents were often guarded or cautious in pouring too much love and affection on someone who may die. Also children had not yet achieved a place of status in society. Why treat them well when there was nothing materially or socially to be gained by doing so. So children occupied a status of "not having yet arrived." It was only with time that they gained status and a place (an arrival) in society. Such concerns do not

interest Jesus. He was, as was often the case challenging the conventions of His day.

He takes the boy, stands him up in the presence of the disciples and then embraces him. He then says to the disciples, **“Whoever receiv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in My name receives Me; and whoever receives Me, receives not Me but Him who sent Me.”** The English word "Receive" is a translation from the Greek root word *dechomai*. One of the definitions of this word is, “to be willing to accept someone's company.” To be happy or content to be with this person. That's an interesting concept to consider. Whose company would you be willing to accept? Surely important and significant people in society, the president, diplomats, judges, company executives, the chief of police and famous celebrities. But what people at the other end of the social spectrum? People such as criminals, prostitutes, drug users, gang members and the homeless. Would you accept the company of these people?

What message is Jesus trying to convey through this object lesson? Simply this, He was demonstrating that the service God expects is shown in caring for people, even (especially) insignificant people such as children. True service is marked by it being purely sacrificial. It is performed out of love and concern without any ulterior motives lying behind it. Sadly many of the “good things” we do for others are done with self-interest in mind. We are happy to help a friend in need, because we know they will owe us a favour in return. But true service in Christ's Kingdom is to be done without such thought motivating us. We are to lovingly serve those who we know can give us nothing in return.

Humanly speaking this is something we find difficult. We find it easy to show care and attention to people of high status. Whenever an important person visits a place people rush around to make them welcome and provide what they need. Perhaps we are hoping they will think favourably of us or reward us in some other way. This same level of care or attention is never shown to people of low status. People without jobs or the homeless for example. In Jesus day small children would have been included in this later group.

There is a very good reason why we are to receive and welcome the lowest in society. It is because in embracing those that society rejects, or thinks are insignificant we really learn to welcome the Lord Jesus. This is because He, though being the greatest, made Himself last and servant to all. He presents to us the model we are to follow.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Jesus continue His teaching.

36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마태의 기록에서 제자들은 예수께 그분의 왕국에서 위대함의 근거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마태복음 18:1)

주님은 그들에게 실물 예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는 실제 물체를 사용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사용하여 실용적인 교훈을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영유아는 대단한 존중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아이는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무시되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의 낮은 지위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충격적으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유아기에 사망했기 때문에 부모는 종종 죽을 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아직 사회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얻을 것이 없는데 그들을 잘 대해줄 필요가 없던

세상의 철학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거나 당신을 우러러 본다면 당신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상반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위대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이고 즐거운 봉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봉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그들이 우리의 노력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봉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노력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찾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위대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 중 누구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